

大小腸 泌別清濁에 관한 考察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¹ ·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² · 한국전통의학연구소³

송지청^{1, 2} · 금경수^{1, 2, 3} · 엄동명^{1, 3}*

A Review on Separation of the Clear[清] and Turbid[濁] in Large & Small Intestine

Song Ji-chung^{1, 2} · Keum Kyung-soo^{1, 2, 3} · Eom Dong-myung^{1, 3}*

¹Dept. of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²Prof.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³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onceptions about functions of large & small intestine[LI & SI] were focused on the vermiculation in 『Somun(素問)·Yeongranbijeonron(靈蘭秘典論)』. However, functions of large & small intestine includes more.

In Oriental Medicine, there are sentences in 『Hwangjenaegyeong(黃帝內經)』 "LI manages Fluid [津] and SI manages Humor[液]" It means that LI & SI have an each role in digestion besides vermiculation. In that reason, we try to find out the meaning of the functions of LI and SI in digestion through bibliographic review.

As a result, LI and SI have a digestic function by Separating the Clear which includes Fluids and Humor and the Turbid which is relatively useless to the Clear.

Key Words : Function, Digestion, Separation of the Clear and Turbid(泌別清濁), the Clear and the Turbid(清濁), Yeongranbijeonron(靈蘭秘典論)

I. 序論

小腸과 大腸의 機能에 대한 認識은 다른 腑, 膽, 胃, 三焦, 膀胱에 비하여 比較的 明確하다고 생각한 다. 『素問』 「靈蘭秘典論」의 “大腸者 傳道之官 變化 出焉 小腸者 受盛之官 化物出焉”은 小腸과 大腸의

機能에 關하여 國家의 職能을 例들어 說明한 것인데, 이는 大腸과 小腸의 機能이 주로 飲食物 消化過程 中 物質의 移動을 主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素問』 「六節藏象論」에서 “脾胃大腸小腸 三焦膀胱者 倉廩之本 營之居也 名曰器 能化糟粕 轉 味而入出者也”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小腸과 大腸의 機能이 脾胃와 더불어 倉廩之本이듯 消化過程 中에서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物質의 轉輸 機能만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不足함이 있다.

飲食物을 消化吸收시키는 生理機能을 주제로 다룬

* 교신저자 : 엄동명.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원전학교실
E-mail: kskeum@wku.ac.kr Tel: 063-850-6941.
Fax : 063-851-6941.
접수일(2010년 2월 19일), 수정일(2010년 3월 21일),
게재확정일(2010년 3월 22일)

기존의 研究들로 백상룡¹⁾, 오재근²⁾, 류정아³⁾ 등의 研究들이 있는데, 기존 研究에서 津液을 排泄하는데 膀胱이 어떤 役割을 담당하고 있는지, 津液의 生成과 體內 運行, 膀胱 津液을 小便으로만 제한할 수 없다는 등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胃에서 大小腸으로 전달된 飮食物이 어떤 過程을 거쳐 체내로 再吸收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臟腑가 어떤 役割을 하는지를 설명한 研究는 아직 없다.

本稿에서는 『黃帝內經』을 포함한 歷代 醫學文獻을 통해 飮食物이 體內로 들어와 胃, 小腸, 大腸으로 轉輸되면서 精微物質을 吸收하고 糟粕을 排泄하는 過程을 ‘秘別清濁’이라는 觀點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論

1. 大小腸에 대한 『黃帝內經』과 註釋家들의 認識

大腸과 小腸에 관한 『黃帝內經』의 言及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素問』 「靈蘭秘典論」, 『素問』 「刺法論」 : 大腸者 傳道之官 變化出焉 小腸者 受盛之官 化物出焉⁴⁾

『素問』 「六節藏象論」 : 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 倉廩之本 營之居也 名曰器 能化糟粕 轉味而入出者也⁶⁾

『靈樞』 「本輸」 : 肺合大腸 大腸者 傳道之府 心合小腸 小腸者 受盛之府⁷⁾

- 1) 백상룡. 水液疾患의 病機 및 治療原則에 대한 비교고찰 -東醫寶鑑의 編制를 중심으로-. 한국한의학회연구논문집. 9(1). 2003. pp130-137.
- 2) 오재근, 윤창열. 水穀의 運化와 배출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1(4). 2008. pp.249-260.
- 3) 류정아, 장우창, 정창현. 水穀의 人體內 代謝過程 설명모델.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8. 21(1). pp.63-78.
- 4) 楊維傑 撰. 黃帝內經素問譯解. 台北. 台聯國風出版社印行. 1984. pp.77-78.
- 5) 王冰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p.659-660.
- 6) 楊維傑 撰. 黃帝內經素問譯解. 台北. 台聯國風出版社印行. 1984. p.90.
- 7) 楊維傑 撰. 黃帝內經靈樞譯解. 台北. 台聯國風出版社印行.

『靈樞』 「經水」 : 手太陽外合于淮水 內屬于小腸而水道出焉.⁸⁾

『素問』 「營衛生會」 : 下焦者 別迴腸 注于膀胱 而滲入焉 故水穀者 常并居于胃中 成糟粕而俱下于大腸 而成下焦 滲而俱下 濟泌別汁 循下焦而滲入膀胱焉⁹⁾

『素問』 「靈蘭秘典論」에서는 大腸은 傳道の 官能으로 變化가 出하는 腑로, 小腸은 受盛의 官能으로 化物이 出하는 腑라고 하였다. 大腸의 傳道와 變化에 대하여 張景岳은 小腸의 아래에서 糟粕을 傳道하여 내보내는 것으로 이해하였고¹⁰⁾, 小腸의 受盛과 化物에 대하여 王冰은 胃에서 내려온 糟粕을 담아 다시 大腸으로 傳入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¹¹⁾.

『六節藏象論』에서는 大腸과 小腸은 胃와 더불어 倉廩之本으로 糟粕을 만드는 기관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王冰은 水穀의 滋味가 脾胃에 들어가고 脾胃의 糟粕이 그 味를 傳化하여 小腸과 大腸을 지나 三焦와 膀胱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¹²⁾.

『靈樞』 「本輸」에서는 肺와 大腸, 心과 小腸의 臟腑表裏를 言及하며 大腸은 傳道之腑, 小腸은 受盛之腑라고 하였다. 馬蒔는 傳道之府에 대하여 道는 이끄는 것으로 小腸에서 이미 變化된 物이 이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하였고¹³⁾, 楊上善은 受盛之府에 대하여 胃는 糟粕을 만들고 小腸은 받아서 담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⁴⁾.

1984. p.29.

8) 楊維傑 撰. 黃帝內經靈樞譯解. 台北. 台聯國風出版社印行. 1984. p.165.

9) 楊維傑 撰. 黃帝內經靈樞譯解. 台北. 台聯國風出版社印行. 1984. p.200.

10) 張介賓.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31. : “大腸, 居小腸之下, 主出糟粕, 故爲腸胃, 變化之傳道”

11) 王冰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68. : “承奉胃, 司受盛糟粕, 受已腐化, 傳入大腸, 故云受盛之官, 化物出焉”

12) 王冰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78. : “水穀滋味, 入於脾胃, 脾胃糟粕, 轉化其味, 出於三焦膀胱, 故曰轉味而入出者也”

13) 馬元臺張隱庵合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靈樞. 台北. 台聯國風出版社印行. 1981. p.23. : “道, 導同, 凡小腸已化之物, 從此, 傳道而下也”

14)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經水」에서는 手太陽經을 淮水에 비유하고 안으로는 小腸에 屬하여 水道가 나온다고 하였다. 張隱庵은 水道出焉에 대하여 胃의 水液을 받아 받아들여 膀胱으로 泌別清濁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¹⁵⁾.

「營衛生會」에서는 水穀이 胃에 있다가 糟粕을 이룬 후 大腸으로 내려가 下焦를 形成하고 汁을 泌別하여 下焦를 돌아 膀胱으로 스며들어간다고 하였다. 馬蒔는 胃가 받아들인 水穀이 脾의 運化作用을 거쳐 小腸으로 들어가고, 渣滓는 廻腸(大腸)으로 들어가 大便으로 나오며, 水液은 膀胱으로 가서 小便으로 나온다고 認識하였다¹⁶⁾.

이처럼 『黃帝內經』에서 小腸과 大腸에 대한 認識은 糟粕의 移動에 초점을 두었으며, 後代 醫家들의 註釋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大小腸에 대한 『難經』과 註釋家의 認識

大腸과 小腸에 관한 『難經』의 言及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難經』「三十五難」：五藏各有所 府皆相近而心肺獨去大腸小腸遠者 何也 然 經言心榮肺衛 通行陽氣 故居在上 大腸小腸傳陰氣而下 故居在下 所以相去而遠也 (中略) 經言小腸者 受盛之府也 大腸者 傳寫行道之府也 (中略) 小腸者 心之府 大腸者 肺之府¹⁷⁾

『難經』에서는 大腸과 小腸은 糟粕으로 변한 陰氣를 傳送하기 때문에 아래에 위치하며, 小腸은 受盛之

府로 大腸은 傳寫行道之府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張世賢은 胃에서 내려온 穢濁이 大腸과 小腸에 의해 傳해 지는 것으로, 小腸은 胃에서 내려온 糟粕을 담아 變化시켜 다시 大腸으로 傳入하고 大腸은 不潔之物을 傳寫(瀉)하여 道路에 流行시키는 것으로 ‘傳陰氣而下’를 설명하였으며¹⁸⁾, 其他 徐大椿의 『難經經釋』, 黃元御의 『難經懸解』, 丁錦의 『古本難經闡注』 등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¹⁹⁾하였다.

이처럼 『難經』에서도 『內經』과 같이 大腸과 小腸에 대하여 糟粕을 移動시키는 것으로 認識하고 있고, 이에 대한 諸家의 註釋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3. 大小腸에 대한 기타 醫書에서의 認識

1) 『脾胃論』

『脾胃論』「大腸小腸五臟皆屬於胃胃虛則俱病論」：黃帝針經云 手陽明大腸 手太陽小腸皆屬足陽明胃 (中略) 大腸主津 小腸主液 大腸小腸受胃之榮氣 乃能行津液於上焦 溉灌皮毛 充實腠理 若飲食不節 胃氣不及 大腸小腸無所稟受 故 津液涸竭焉²⁰⁾

『脾胃論』「胃虛臟腑經絡皆無所受氣而俱病論」：大腸者 庚也 燥氣也 主津 小腸者 丙也 熱氣也 主液 此皆屬胃 胃虛則無所受氣而亦虛 津液不濡 睡覺口燥咽乾而皮毛不澤也²¹⁾

『脾胃論』에서는 『黃帝內經』이나 『難經』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단순히 糟粕을 移動시키는 기관이라는

p.273. : “胃化糟粕, 小腸受而盛也”

15) 馬元臺張隱庵合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靈樞. 台北. 台聯國風出版社印行. 1981. p.138. : “小腸, 受盛胃之水液, 而濟泌於膀胱”

16) 馬元臺張隱庵合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靈樞. 台北. 台聯國風出版社印行. 1981. p.171. : “胃納水穀, 脾乃化之, 化已入於小腸… 此下焦之氣, 渣滓則別入於迴腸, 而在後以出之, 水液, 注滲於膀胱, 而在前以出之. 故知水穀者, 常并居於胃中, 入小腸, 成糟粕, 以俱下於大腸, 其精微之氣, 由上中二焦, 以降大腸而成下焦, 若水液則滲而俱下濟泌別汁, 循此下焦之氣而滲入膀胱焉”

17) 최승훈. 難經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1998. p.189.

18) 張世賢. 圖注難經脈訣·圖注八十一難經. 台南. 合成美術印刷廠. 1977. p.26. : “其穢濁, 傳於大腸小腸, 傳送, 心肺不得不居於上, 而大腸小腸不得不居於下也… 受盛者, 承奉胃司受盛糟粕, 受已復化, 傳入大腸, 傳瀉不潔之物, 以爲流行道路”

19) 尹暢烈, 金容辰 編著.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2. p.603

20)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105.

21)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107.

認識에서 벗어나 津液을 主宰하여 大腸과 小腸이 各 各 만들어낸 津과 液을 上焦로 運送하는 개념을 제시 하였다.

또한 大腸과 小腸은 津과 液을 主宰하며, 모두 胃와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胃虛하면 大腸, 小腸도 虛해지는 同時에 위로 津液이 上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²²⁾.

2) 『醫學正傳』

『醫學正傳』 「醫學或問」: 蓋水穀入胃 其濁者爲渣滓 下出幽門 達大小腸而爲糞 以出於穀道 其清者 倏焉而化爲氣 依脾氣而上升於肺 其至清而至精者 由肺而灌溉乎四體而爲汗液津唾 助血脈 益氣力而爲生生不息之運也 其清中之濁者 下入膀胱而爲溺 以出乎小便耳²³⁾

『醫學正傳』에서는 胃中 濁者は 渣滓로 大腸과 小腸에 전해져 糞이 되어 穀道로 나오며, 清者は 氣로 화하여 脾에 의해 肺로 가 전신에 輸布되는데, 그 清中清者は 津液이 되어 全身으로 나가고 그 清中濁者は 膀胱으로 들어가 小便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胃에서 내려온 糟粕이 小腸과 大腸을 거치면서 大便이 形成된다고 인식한 것으로 『內經』이나 『難經』의 認識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小便의 生成에 관해서는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肺에서 膀胱으로 내려와 生成된다고 하였다. 물론 이 부분에 관해서는 『素問』 「經脈別論」에서 언급한 “飲入於胃 遊溢精氣 上輸於脾 脾氣散精 上歸於肺 通調水道 下輸膀胱”과 一脈相通하는 것으로, 기존 『內經』의 認識과 다를 바가 없지만, 여기서 다르다고 한 이유는 『內經』에서 주되게 ‘胃에서 腐熟된 飲食物 중 清者は 脾에 의하여 肺로 傳輸되고 濁者は 小腸으로 가는데, 그 중 清者は 膀胱으로 가 小便이 되고 濁者は 大腸으로 가 大便이 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22) 上輸란 飲食物의 消化過程 中 얻어진 精微物質이 下焦에서 上焦로 또는 腑에서 臟으로 이동함을 意味한다.

23)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p.8.

3) 『明醫雜著』

『明醫雜著』 「醫論」: 蓋脾爲中州 澆灌四傍 爲胃行其津液者也 沉大腸主津 小腸主液 亦皆稟氣於胃 胃氣一充 津液自行矣²⁴⁾

『明醫雜著』에서는 胃는 津液을 行하는데, 大腸과 小腸이 津과 液을 主宰하고 있어서, 大腸과 小腸은 모두 胃氣와 密接하게 相關하고, 胃氣가 正常이라야 津液도 正常임을 밝혀 大腸과 小腸이 단순히 受盛과 傳道の 腑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4) 『醫學入門』

『醫學入門』 「臟腑條分」: 小腸者 受盛之官 化物出焉 凡胃中腐熟水穀 其滓穢自胃之下口 傳入於小腸上口 自小腸下口 泌別清濁 水入膀胱上口 滓穢入大腸上口²⁵⁾

『醫學入門』 「臟腑條分」: 凡腸胃合受水穀 八斗七升六合八分合之一 闌門者 大小腸各受物傳化而相會於此 滓入廣腸 水入膀胱 關關分膈 故曰闌門²⁶⁾

『醫學入門』 「臟腑條分」: 肛門亦大腸之下截也 總與肺爲表裏 大小腸之系 自膈下與脊膂連心腎膀胱相系 脂膜筋絡 散布包裹 然各分紋理 羅絡大 小腸與膀胱 其細脈之中 乃氣血津液流走之道²⁷⁾

『醫學入門』 「雜病分類·膈噎」: 其槁在上焦 賁門者 (中略) 賁門 卽胃脘上口 言水穀自此奔入於胃而氣則傳之於肺也 其槁在中焦幽門者 (中略) 幽門與中脘相近 言其位幽僻 胃中水穀自此而入小腸也 其槁在下焦闌門者 (中略) 闌門膈下 攔約水穀 分入膀胱 大腸而爲

24) 王綸. 明醫雜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

25) 李梴. 醫學入門. 서울. 고려의학. 1978. p.84.

26) 李梴. 醫學入門. 서울. 고려의학. 1978. p.89.

27) 李梴. 醫學入門. 서울. 고려의학. 1978. p.89.

糞溺 是大小腸 膀胱乃氣血津液流通之道路也²⁸⁾

『醫學入門』에서는 小腸이 胃下口에 位置하여 泌別 清濁을 통해 水分은 膀胱으로 보내고 滓穢는 大腸으로 보내 糞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5) 『萬病回春』

『萬病回春』「內傷」：蓋脾爲中州 澆灌四傍 爲胃行其津液者也 況大腸主津 小腸主液 亦皆稟氣於胃 胃氣一充 津液自行矣²⁹⁾

『萬病回春』에서는 大腸과 小腸은 모두 胃氣와 密接하게 관련이 있어서 津液을 主宰하고 津液을 行한다고 하여, 단순히 受盛과 傳道の 腑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이 內容은 『明醫雜著』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다.

6) 『鍼灸大成』

『鍼灸大成』「八法手訣歌」：小腸下口 至是而泌別清濁 水液入膀胱 滓穢入大腸³⁰⁾

『鍼灸大成』「足太陰脾經穴歌」：蓋人之飲食入口 由胃脘入于胃中 其滋味滲入五臟 其質入于小腸乃化之 至小腸下口 始分清濁 濁者爲渣滓 入于大腸 清者爲津液 入于膀胱 乃津液之府也³¹⁾

『鍼灸大成』에서는 小腸의 모양과 위치, 清濁을 泌別하며 水液(清)은 膀胱으로 滓穢(濁)는 大腸으로 보내는 機能을 설명하였다. 또한 胃中에 들어온 음식물이 消化되어 그 滋味는 五臟에 들어가고 그 質이 小腸으로 들어가 化하여 小腸下口에서 清濁으로 分別

되어, 濁者는 渣滓가 되어 大腸으로 들어가고, 清者는 津液이 되어 津液之府인 膀胱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7) 『壽世保元』

『壽世保元』「臟腑論」：愚謂人之飲食入口 由胃管入於胃中 其滋味滲入五臟 其質入於小腸乃化之 則入於大腸 始分別清濁 渣滓濁者 結於廣腸 津液清者 入於膀胱 膀胱乃津液之府也³²⁾

『壽世保元』에서는 胃中에 들어온 음식물이 消化되어 그 滋味는 五臟에 들어가고 그 質이 小腸으로 들어가 化하여 小腸하구에서 清濁으로 分別되어 濁者는 渣滓가 되어 大腸으로 들어가고 清者는 津液이 되어 津液之府인 膀胱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이 內容은 『鍼灸大成』에서 언급한 內容과 같다.

8) 『醫貫』

『醫貫』「玄元膚論」：五味入胃 其津液上升 精者化爲血脈 以成骨髓 津液之余 流入下部 得三焦之氣施化 小腸滲出 膀胱滲入 而溲便注泄矣 凡胃中腐熟水穀 其精氣 自胃口之上口 曰賁門 傳於肺 肺播於諸脈 其滓穢 自胃之下口 曰幽門 傳於小腸 至小腸下口 曰闕門 泌別其汁 清者滲出小腸 而滲入膀胱 滓穢之物 則轉入大腸³³⁾

『醫貫』에서는 五味가 胃에 들어가 그 津液은 上升하여 精微로운 것은 血脈과 骨髓가 되고, 津液의 나머지는 小腸 膀胱으로 가 小便이 되며, 胃에서 腐熟한 水穀 가운데 精氣는 肺로 傳해져 諸脈으로 傳播되고, 그 찌꺼기는 小腸으로 傳해져 泌別過程을 통해 膀胱으로 가고, 그래도 남은 찌꺼기는 大腸으로 간다

28) 李樅. 醫學入門. 서울. 고려의학. 1978. p.396.

29) 龔廷賢. 萬病回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103.

30)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43. p.184.

31)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43. p.204.

32) 龔廷賢. 壽世保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29.

33) 趙獻可. 醫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3.

고 說明하였다.

9) 『類經』

『類經』「藏象類·十二官」：小腸居胃之下 受盛胃中水穀 而分清濁 水液由此而滲於前 糟粕由此而歸於後 脾氣化而上升 小腸化而下降 故曰化物出焉³⁴⁾

『類經』「藏象類·藏象」：此六者 皆主盛受水穀 故同稱倉廩之本 營者 水穀之精氣也 水穀貯於六府 故爲營之所居 而皆名曰器 凡所以化糟粕轉五味者 皆由乎此也³⁵⁾

『類經』「藏象類·血氣陰陽清濁」：手太陽 小腸也 小腸居胃之下 承受胃中水穀 清濁未分 穢汚所出³⁶⁾

『類經』「經絡類·營衛三焦」：迴腸 大腸也 濟 涕同 猶醞濾也 泌 如狹流也 別汁 分別清濁也 別迴腸者 謂水穀并居胃中 傳化於小腸 當臍上一寸水分穴處 糟粕由此別行迴腸 從後而出 津液由此別滲膀胱 從前而出 膀胱無上口 故云滲入 凡自水分穴而下 皆下焦之部分也 按三十一難曰 下焦者 當膀胱上口 主分別清濁 其言上口者 以滲入之處爲言 非眞謂有口也 如果有口 則不言滲入矣 何後世不解其意而爭言膀胱有上口 其謬爲甚³⁷⁾

『類經』「疾病類·十二經病」：小腸主泌別清濁 病則水穀不分而流行無制 是主液所生病也³⁸⁾

『類經』에서는 『素問』「靈蘭秘典論」의 “小腸者 受盛之官 化物出焉”에 대하여, 小腸은 胃의 아래에 위치하여 胃의 水穀을 담아 清濁을 分別하고 水液은 여기에서 말미암아 앞으로 가고 糟粕은 뒤로 가는 것으로 ‘受盛’을 이해하였고, 脾는 飲食物을 化하여 上升

시키고 小腸은 化하여 下降시키는 것으로 ‘化物’을 이해하였다.

또한 『素問』「六節藏象論」의 “脾胃大腸小腸三焦 膀胱者 倉廩之本 營之居也 名曰器 能化糟粕轉味而出入者也”에 대하여, 脾臟과 胃, 大腸, 小腸, 三焦, 膀胱은 水穀을 담는 것을 主宰하므로 倉廩의 本이 되며, 營者는 水穀의 精微인데 水穀이 六腑에 貯藏되므로 營이 居處하는 바가 되니 糟粕을 變化시키고 五味로 傳化시키는 것은 모두 여기에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認識하였다.

『素問』「陰陽清濁」의 “黃帝曰 諸陽皆濁 何陽濁甚乎 岐伯曰 手太陽獨受陽之濁 手太陰獨受陰之清”에 대하여는, 手太陽은 小腸을 말하는 것이니 小腸은 胃의 아래에 居處하여 胃의 水穀을 이어 받으므로 아직 清濁이 分화되지 않은 穢汚가 나오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靈樞』「營衛生會」의 “黃帝曰 願聞下焦之所出 岐伯答曰 下焦者 別迴腸 注於膀胱而滲入焉 故水穀者 常并居於胃中 成糟粕而俱下於大腸 而成下焦 滲而俱下 濟泌別汁 循下焦而滲入膀胱焉”에 대해서는, 濟는 醞濾로써 거른다는 의미이고, 泌는 狹流와 같고, 別汁은 清濁을 分別하는 것이니, 水穀이 胃에 있다가 小腸으로 傳化된 후, 糟粕이 여기에서 말미암아 腸을 돌아 나오고, 津液은 여기에서 말미암아 膀胱으로 스며들어 앞으로 나온다고 인식하였다.

『靈樞』「經脈」의 “是主液所生病者”에 대해서는 小腸에 病이 나면 水穀이 分別되지 않기 때문에 小腸은 泌別清濁을 主宰한다고 하였다.

10) 『醫門法律』

『醫門法律』「先哲格言」：下焦若瀆 瀆者溝瀆之義 可以決瀆 可以傳導 乃是小腸之下口 關門 泌別水穀 自此而釐清濁之所 此爲下焦³⁹⁾

『醫門法律』에서는 小腸의 機能을 下焦의 決瀆과

34) 張介賓.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31.

35) 張介賓.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34.

36) 張介賓.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p.73-74.

37) 張介賓.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270.

38) 張介賓.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417.

39) 喻嘉言. 醫門法律. 서울. 東南出版社. 1983. p.142.

관련시켜서 小腸의 下部인 關門에서 水穀을 泌別하여 清濁을 다스리니 이것이 下焦라고 認識하였다.

11) 『張氏醫通』

『張氏醫通』「痢」: 小腸者 心之合也 大腸者 肺之合也 二經皆出納水穀轉輸糟粕之官也 而胃又爲大小腸之總司⁴⁰⁾

『張氏醫通』에서는 小腸과 大腸은 모두 水穀을 出納하고 糟粕을 轉輸하는 官能에 있으며 胃가 大小腸의 總司가 된다고 認識하였다.

III. 考察

『素問』「靈蘭秘典論」에서 小腸은 受盛之官, 大腸은 傳道之官이라 하였는데, 「刺法論」 「六節藏象論」 『靈樞』 「本輸」 「經水」 등에서 小腸과 大腸의 機能을 受盛과 傳道에 局限하여 說明하였다. 즉, 小腸은 胃에서 腐熟되어 내려온 物質을 受盛하였다가, 清濁으로 泌別하여 清者를 膀胱으로 보내 小便의 形態로 體外排出하고 濁者를 糟粕의 形態로 大腸으로 내려 보내는 機能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大腸은 小腸에서 보낸 糟粕을 傳道하여 大便의 形態로 體外排出하는 機能에 있다고 하였다.

歷代 註釋家들도 이 부분에 관하여 대부분 異見이 없으며, 『難經』과 『難經』註釋家들, 그리고 『醫學正傳』, 『醫學入門』, 『鍼灸大成』, 『壽世保元』, 『醫貫』, 『類經』, 『醫門法律』, 『張氏醫通』 등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胃에서 腐熟된 飲食物을 小腸이 受盛하고 大腸이 傳道한다.
2. 小腸은 受盛한 물질인 清濁을 泌別하여, 이중 清者는 膀胱으로 보내고 濁者는 大腸으로 보낸다.
3. 小腸에서 보내서 膀胱으로 들어온 清者는 小便

의 形態로 체외로 배출되고, 小腸에서 보내서 大腸으로 들어온 濁者는 傳道作用을 통해 大便의 形態로 체외로 배출된다.

이처럼 小腸과 大腸에 대한 認識은 小腸에서는 小便을 만들고 大腸에서는 大便을 만드는 機能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脾胃論』의 內容은 이와 좀 다르다. 『脾胃論』에서는 大腸과 小腸이 主宰하는 津과 液을 上焦로 運行한다고 하였다. 또한 『明醫雜著』, 『萬病回春』에서도 大小腸의 津液이 胃氣에 의해 全身으로 퍼져 나가는 過程을 說明하고 있어서 기존의 認識과는 差異를 보인다.

小腸은 그 位置上 胃에서 내려 보낸 物質을 받아 大腸으로 내려 보내고, 大腸은 이를 다시 肛門을 통해 體外로 排出한다. 이때 胃에서 내려보낸 物質은 小腸과 大腸을 거치면서 매번 狀態變化를 거친다. 이때의 狀態變化는 胃에서 水穀을 清濁으로 狀態變化하듯이 小腸에서도 清濁으로, 大腸에서도 清濁으로 狀態變化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이 여러 醫書에서 말하는 ‘泌別清濁’의 過程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小腸은 胃에서 보낸 物質을 清濁으로 泌別하고, 이후 清者는 小腸主津의 觀點으로 보면 液이 되어 上輸되며, 濁者는 大腸으로 傳送될 것이다. 大腸은 小腸에서 보낸 濁者를 다시 清濁으로 泌別하고, 이후 清者는 大腸主津의 觀點으로 보면 津이 되어 上輸되며, 濁者는 胃腸下口를 지나 大便의 形態로 體外排出될 것이다.

問題點은 物質이 小腸과 大腸을 위와 같이 거치게 되면 小便의 生成點이 缺如된다는 것이다. 『內經』 및 기타 기존 醫書의 견해와 같이 小便이 小腸의 清者에서 生成되는 것이라면, 小腸이 清濁을 泌別하여 만들어져 大腸으로 가는 濁者는 大腸에서 받아들인 濁者와 같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小腸에서 내려 보낸 濁者가 다시 清濁으로 구분되고, 그 清者는 膀胱으로 가 小便이 되어 體外排出되며, 그 濁者는 大腸이 받아들인 濁者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도해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40) 張璠. 張氏醫通.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3. p.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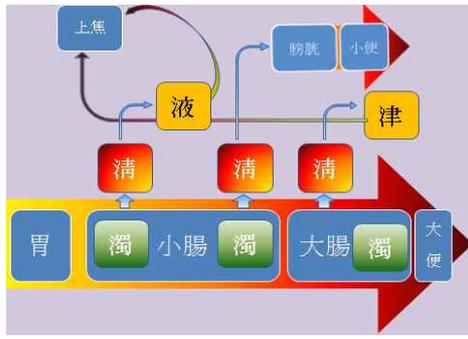


그림 1. 大小腸의 上輸와 傳送過程

이로써 보면 小腸과 大腸의 上輸過程과 受盛 및 傳道過程을 同時에 說明할 수 있는데, 小腸과 大腸의 기능이 단순히 物質의 傳送에 局限되지 않고 消化吸收 過程에도 깊숙히 參與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結論

『素問』 「靈蘭秘典論」에서 “大腸者 傳道之官 變化出焉, 小腸者 受盛之官 化物出焉”이라고 언급한 大小腸의 기능에 대해 受盛이 단지 小腸에서 大便과 小便을 泌別한다거나 傳道가 단지 大腸에서 大便을 傳道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大小腸은 消化吸收 過程에도 깊숙히 參與하고 있다. 清濁을 分別하는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여러 狀態變化를 거치면서 消化吸收, 再吸收, 排泄이 이루어진다.

1. 『脾胃論』 「大腸小腸五臟皆屬於胃」에서 언급한 것처럼 大腸은 津을 主宰하고 小腸은 液을 主宰하여 津과 液이 大腸과 小腸에서 흡수되어 上焦로 行한다.
2. 小腸에서는 胃에서 받은 飲食物을 清濁으로 泌別하여, 液 등을 포함한 清者를 上焦로 傳輸하며 濁者를 下焦로 運送한다. 이 가운데 濁者는 다시 清濁으로 區別되어 清者는 膀胱으로 보내 小便의 형태로 體外로 排出시키고, 濁者는 大腸으로 運送시킨다.
3. 小腸에서 大腸으로 내려온 濁者는 다시 清濁으로 分別되어 이중 清者는 津 등을 포함한 精微

물질형태로 上焦로 運輸되며, 濁者는 大便의 형태로 體外排出된다.

지금까지 飲食物이 體內로 들어와 大小腸에서 再吸收되어 活用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痰飲이나 津液 등에 대한 내용도 앞으로 深度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感謝의 글

본 논문은 2008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參考文獻

1. 尹暢烈, 金容辰 編著.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2. p.603.
2.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師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3. 楊維傑 撰. 黃帝內經素問譯解. 台北. 台聯國風出版社印行. 1984. p.90. pp.77-78.
4. 楊維傑 撰. 黃帝內經靈樞譯解. 台北. 台聯國風出版社印行. 1984. p.23, 29, 165, 200.
5. 張介賓.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p.31, 34, 270, 417. pp.73-74.
6. 王冰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68, 78. pp.569-660.
7. 馬元臺張隱庵合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台北. 台聯國風出版社印行. 1981. p.138, 171.
8.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p.273.
9. 최승훈. 難經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1998. p.189.
10. 王九思. 難經集注. 台北. 台灣中華書局. 1985.
11. 張世賢. 圖注難經脈訣·圖注八十一難經. 台南. 合成美術印刷廠. 1977. p.26.
12.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105, 107.
13.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p.8.
14. 王綸. 明醫雜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 p.8.
15. 李旻. 醫學入門. 서울. 고려의학. 1978. p.84
89, 396.
 16. 龔廷賢. 萬病回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103, 204.
 17.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 1943.
p.184, 204.
 18. 龔廷賢. 壽世保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29.
 19. 喻嘉言. 醫門法律. 서울. 東南出版社. 1983.
p.142.
 20. 張璠. 張氏醫通.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3. p.329.
 21. 徐大椿. 難經經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6.
 22. 黃元御. 難經懸解.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6.
 23. 丁錦. 古本難經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6.
 24. 백상룡. 水液疾患의 病機 및 治療原則에 대한
비교고찰 -東醫寶鑑의 編制를 중심으로-. 한
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3. 9(1).
pp.130-137.
 25. 오계근, 윤창열. 水穀의 運化와 배출 -『黃帝內
經』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8. 21(4). pp.249-260.
 26. 유정아, 장우창, 정창현. 水穀의 人體內 代謝過
程 설명모델.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8.
21(1). pp.63-78.
 27. 趙獻可. 醫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3.